

해빙기 도로 포트홀 ‘우후죽순’…보수는 ‘하세월’

광주 울들어서만 6400여건 발생 시·자치구 인력 부족에 더딘 보수 운전자들 ‘한달 쯤 그대로’ 분통 차량들 포트홀 피해 아찔 운전도시 “2차 피해 없게 빠른 보수할 것”



광주시 남구 진월동 한 도로에서 포트홀이 발생해 24일 오후 남구청 도로보수반 직원들이 응급보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겨울 동안 내렸던 눈이 녹으면서 광주 지역 도로 곳곳에 포트홀(Pot hole·도로 파임)이 우후죽순 생겨 운전자 피로도가 극한에 다다르고 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응급보수반’을 운영하며 대처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은 “포트홀이 생긴 지 한 달 여가 지나도록 그대로”라며 ‘녹장 대응’을 성토했고 있다.

24일 오후 2시 30분께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시 남구 진월동 광주씨티병원 인근 도로에는 군데군데 움푹 파이고 주저앉은 모습이였다.

일부 노선은 포트홀과 함께 10여m 길이의 도로가 침하돼 거미줄처럼 금이 갈라져 있었다. 이번 달 내내 내렸다 그쳤다가 반복한 눈으로 인해 약해진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며 지반침하까지 일어난 것이다.

도로를 오가는 차량들은 달궈지며 포트홀을 지나가다 깜짝 놀라 속도를 줄이거나 포트홀을 피해 중앙선에 바짝 붙어 지나가기도 했다.

택시기사 문모(58)씨는 “이달 초부터 남광주교가에 포트홀이 생겼는데 아직까지 보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라며 “그렇지 않아도 도시철도2호선 공사 도로가 누더기인데 포트홀까지 발생이니 운전할 때 떨기가 날 지경이다”고 하소연했다.

곧이어 광주시 남구 건설과 소속 도로보수반 직원들이 찾아와 복구 작업에 돌입했지만, 작업을 마치기까지는 꼬박 20여분이 걸렸다. 도로 응급 보수재를 붓고 삽으로 일일이 벌친 뒤, 다짐 장비로 평

탄화 작업까지 마치는 식이었다.

도로보수반 정병욱(52)씨는 “이번 보수작업은 면적이 넓어 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작은 포트홀의 경우 보수에 5분도 안걸린다”며 “운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작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특히 이 시기 포트홀이 많이 발생해

날마다 비상이다. 오전에만 10여건의 포트홀을 메웠는데, 오후에도 수십개를 더 보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가 내민 작업 내역서에는 국민신문고나 전화로 접수된 도로 보수 요청 민원이 어림잡아 60여건 적혀 있었다.

올해 1월1일부터 현재까지 광주시에 접수된 폭 20m 이상 도로(광주시 관할)에서 발생한 포트홀

은 5500건에 달한다. 하루에 100건 꼴이다.

2022년 1만 429건, 2023년 2만3448건, 2024년 3만3822건이 발생해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폭 20m 미만 도로(5개 자치구 관할)에서도 2022년 5037건, 2023년 6927건, 2024년 8744건, 2025년(2월24일까지) 893건의 포트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포트홀은 제설용 염화칼슘이 노면을 부식시키거나, 아스팔트 내부로 스며든 눈·비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도로를 약화시켜 발생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빙기인 1~3월에 포트홀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실제 광주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됐던 지난 3~9일 일주일 동안 광주시에 접수된 포트홀이 973건에 달했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쏟아지는 포트홀 보수 요청 민원에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는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3개조 12명 기존보수반에 더해 민간업체 외주를 통해 6개조 18명을 추가 투입한 ‘포트홀 이동보수반’을 운영 중이다. 기존보수반은 전반적인 도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외주업체 소속 18명이 집중적으로 포트홀 보수작업을 진행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틀째 오는 28일 도급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까지 입찰공고, 적격심사, 계약 및 착공 등 3주 가량이 소요돼 급증하는 포트홀에 대응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자치구의 경우 더욱 열악하다. 남구의 경우 단 7명의 도로보수반이 포트홀 응급보수는 물론 인도보수와 제설 작업, 과속방지턱 정비 등 도로 정비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민원이 한꺼번에 쏟아지는데다, 응급 보수를 마치더라도 다시 패이는 경우가 많아 정비가 더디게 느껴질 수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수리해 포트홀로 인한 안전사고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 상반기까지 128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상무대로 등 18개 노선과 소규모 포트홀 다발구간을 중심으로 노후 도로를 재포장해 포트홀 발생 가능성을 줄일 것”이라며 “시공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해원 기자 hey1@kwangju.co.kr

벌목 작업하다 “꽂”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해남·담양서 사망사고 잇따라

최근 전남에서 벌목 작업 도중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해남경찰에 따르면 전남 오전 11시 20분께 해남군 계곡면에서 60대 A씨가 가축도 벌목 작업을 하던 중 나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와 함께 작업하던 친척 B씨가 전기톱으로 자른 15m 높이 참나무가 쓰러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께 담양군 수북면 대방리에서도 벌목 작업을 하던 C(54)씨가 나무에 깔려 숨졌다.

전기톱으로 벌목을 하던 C씨에게 2m 높이 1t 규모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벌목

이나 가지치기 등의 작업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46.7%가 ‘벌목한 나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러질 경우’에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주변에서 작업 중인 벌도목 또는 다른 나무에 걸린 벌도목’ (35.0%), ‘주변 지형을 파악하지 않고 작업할 경우’ (5.0%), ‘능선과 경사로에 적재한 벌도목 더미’ 순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작업환경을 고려해 자르는 나무가 원하는 방향으로 쓰러지도록 적절한 방향으로 베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변에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벌목대상 나무에 걸려져 있는 나무를 제거한 뒤 작업을 해야한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주변 작업자들은 등고선을 따라 옆으로 대피해야 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화목난로 태우다 “혁”

곡성 주택서 5명 일산화탄소 중독...병원 이송 치료

곡성의 한 주택에서 화목난로를 사용한 일가족 등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24일 곡성소방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

50분께 곡성군 석곡면 한 주택에서 “숯을 태웠더니 연기 때문에 어지럽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집 안에 있던 60대 남성 1명과 여성 3명,

70대 여성 1명 등 총 5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마을 이웃 사이인 이들은 “집이 추워 난방을 위해 숯불을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밀폐된 공간에서 화목난로를 피우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해원 기자 hey1@kwangju.co.kr

실종 선원 5명 못 찾고...서경호 집중수색 종료

여수해경 경비병행수색으로 변경

여수 앞바다에서 침몰해 10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제22서경호’ 집중수색이 종료됐다.

여수해경은 서경호 침몰사고 조사방식을 집중수색에서 경비와 순찰 업무를 병행하는 경비병행수색으로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그동안 실종 선원 5명(한국인 3명, 인도네시아 1명, 베트남 1명)을 찾기 위해 경비함정과 수중수색대원을 투입하고 야간수색을 이어 오며 집중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해경은 집중수색에 투입됐던 인력과 장비 등을 조정해 경비와 순찰 등 해상 안전관리 업무로 돌린

다. 다만 수색 작업은 계속 이어간다.

서해어업관리단과 인근 조업 어선 등에 협조를 요청해 수색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일 새벽 1시 40분께 여수시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14명(한국인 8명, 외국인 6명)이 탑승한 부산선적 제22서경호가 침몰했다. 9명이 구조됐으나 이종 5명이 숨졌고 나머지 5명은 실종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축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협회,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 2011 수출액만발달,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요별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청 모범업체 표창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드스트리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